



징계 · 임금이 협상 걸림돌? 박 사장의 의지부족이 문제

연합뉴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 회사 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도 퍼지고 있다.

이 중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타결이 됐다’, ‘징계와 임금보전이 걸림돌이다’ 등의 얘기도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협상의 경과와 대강의 분위기를 밝힌다.

6월22일 100일을 맞는 이번 파업의 정당성과 순수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까지 투쟁과정을 통해 입증됐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파업 돌입 이후 진행된 사측과의 협상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줄곧 대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노조의 이런 방침은 지난 5일부터 재개된 협상 테이블에서도 변함이 없다.

주요 협상 분야는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왔던 공정보도, 합리적 인사, 차별해소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또 모든 파업사업장에서 사태 해결 국면에 반드시 논의되는 징계와 임금보전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번 파업이 개인의 안위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협상에서도 징계와 임금보전 문제가 노조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노조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은 징계, 임금보전 문제 등 특

정한 사안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박정찬 사장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의 유연한 태도와는 달리,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특히 박 사장을 비롯한 사측이 강조했던 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사측은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노조가 징계와 임금 문제에 집착한다는 얘기가 계속 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사측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조속한 사태 해결과 회사 정상화는 박 사장의 의지에 달렸음을 거듭 밝힌다.

※ 참고로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거론된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사용자가 파업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임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뜻이 아니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서두르지 말자”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19일 “당장의 고통’ 때문에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본사 7층 사장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KBS와 국민일보가 우리보다 먼저 (파업을) 정리했지만 깨끗이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보복성 인사 등으로 파업 후유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어제까지 협상 결과에 대해 정의대책위원회 내부적으로 토론해 본 결과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 우리가 회사의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연합뉴스를 더 좋은 일터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국민일보의 사례를 반

면교사 삼아 당장 고통스럽다고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들) 깨끗이 정리해 파업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더 좋은 연합뉴스를 만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본사 인근 영화관으로 이동해 ‘후궁 - 제왕의 첩’, ‘내 아내의 모든 것’, ‘다른 나라에서’ 등 최신작을 감상하며 ‘문화투쟁’을 이어갔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을 감상한 뉴미디어부 최춘환 조합원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지친 감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며 기분전환이 됐다”면서 “선·후배 조합원들과 함께 봐 더 즐거

웠다”고 말했다.

‘후궁 - 제왕의 첩’을 택한 다른 조합원도 “최근 영화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게 돼 좋았다. 여럿이 함께 보니 영화에 대한 감

상도 나눌 수 있어 더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